

제 1 교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시선모의고사 문제지

# 국어 영역

2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내일의 나에게 행복이 있으리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선국어연구소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체 내 호르몬 조절 체계는 다양한 생리 현상을 좌우하며, 그 중 안드로겐 계열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테스토스테론은 탈모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탈모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체내에서 5 $\alpha$ -환원효소의 작용으로 DHT로 변환될 때 비로소 모낭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테스토스테론보다 강한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력과 생물학적 활성을 지닌 DHT는, 모낭 구조를 지속적으로 퇴행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호르몬 대사 경로가 변형되면서, 머리카락이 점차 얇아지고 자라는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성된 DHT는 모낭 세포 내부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친화적으로 결합해, TGF- $\beta$ 와 DKK1 등을 포함한 탈모 신호 경로를 활성화한다. 이 과정에서 모낭의 성장기가 현저히 단축되어 모발이 점차 가늘고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주로 이마 부위가 M자 형태로 후퇴하거나 정수리 부위가 둥글게 비어 보이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는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모발 밀도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한편 ㉠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안드로겐 대사와는 다른 호르몬 기전으로 발생한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나 외부 자극이 지속되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빨라지며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 다량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순환한다. 코르티솔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 $\alpha$ , IL-1, IL-6 등의 생성을 촉진하여 모낭 주변 환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모낭 줄기세포가 원활히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로 인해 모낭의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조기 전환이 일어나 대량의 모발 탈락인 텔로젠 탈락을 야기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면 세포사멸 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항세포사멸 단백질인 Bcl-2의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Bax의 발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모낭 세포는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사멸하며, 두피 곳곳에서 성장 주기가 어그러진 머리카락이 대규모로 빠져나간다. 한편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체계의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T 세포 매개 작용을 통해 모낭을 자가 면역계가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소 부위가 원형으로 탈락하는 원형 탈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안드로겐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는 기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낭의 성장 주기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은 유사하다. 안드로겐 탈모의 경우, 5 $\alpha$ -환원효소 억제제를 통한 DHT 생성 억제나 모낭 주변의 혈류 개선이 핵심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반면 스트레스성 탈모는 만성 스트레스 인자를 감소시키고, HPA 축의 과활성화를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더해 적절한 영양 공급과 수면 패턴 교정을 통해 부신 기능과 면역 반응을 정상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1.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DHT가 탈모를 유발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DHT가 모발에 결합하는 과정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② 탈모가 복합적인 반응들이 맞물린 과정임에 주목하고, 그 과정들의 기전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③ 여러 단백질의 역할을 파악하고, 각각의 단백질이 모낭 세포에 끼치는 영향을 구분하며 읽었다.
- ④ 부신의 분비물을 파악하고, 분비물이 어떻게 탈모를 가속화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 ⑤ 탈모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두 유형의 공통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호르몬은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탈모를 유발한다.
- ② DHT는 5 $\alpha$ -환원효소를 자극하여 이마와 정수리 부위의 모발 탈락을 유발한다.
- ③ 호르몬 대사 경로가 변형된다면 해당 경로의 특정 호르몬의 발현은 억제할 수 없다.
- ④ 안드로겐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는 모두 모낭의 성장기를 단축시킨다.
- ⑤ 안드로겐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는 모두 호르몬과 두피 표면의 수용체의 결합으로 발생한다.

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속적인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은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 ② IL-1 생성의 촉진은 안드로겐 대사와 상이한 기전으로 일어나며 텔로젠 탈락을 유발한다.
- ③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염증 반응으로 인해 모낭 줄기세포가 사멸한다.
- ④ Bax의 발현이 증가하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모낭 세포의 수가 줄어든다.
- ⑤ 스트레스성 탈모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Bcl-2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탈모 환자 A, B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환자 A는 35세 남성이며 이마 좌우가 점차 후퇴하며, 두피 조직검사 결과 DHT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환자 B는 28세 여성이고 최근 과도한 업무와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환자 B의 경우 원형 탈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모발이 전체적으로 탈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① 환자 A는 부신이 과하게 자극되어 안드로겐 수용체의 결합이 활발해지겠군.
- ② 환자 B의 자가 면역계는 T세포를 자극하여 모낭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였겠군.
- ③ 환자 A는 모낭 주변의 혈류를 억제하여 DHT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겠군.
- ④ 환자 B는 HPA 축으로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킨다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겠군.
- ⑤ 환자 B는 A와 달리 특정 호르몬의 반응을 억제하여 모낭의 성장 주기를 정상화할 수 있겠군.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로 노니는 물가 돌아들어 반구정을 돌아 나가니  
긴 구름 텅 빈 하늘에 호월(皓月)은 천리로다  
아이야 풍광(風光)이 이러하니 아니 놓고 어찌하리

<제2수>

굽어보니 천심녹수\*, 올라다보니 만척단애\*  
낭떠러지에는 꽃 피고, 녹수(綠水)에 ㉠ 백구 나는구나  
붉은 꽃 피고 백구 나니 한흥(閑興) 겨워 하노라

<제3수>

물 위에는 날갯짓 하는 새, 정자에는 흰 머리의 늙은이  
특별히 다정한 이들은 우리 둘 뿐이로세  
이제는 날 **찾을 이** 없으니 널로 좇아 늙으리라

<제4수>

마음은 청천백일(靑天白日)이고, 생애는 명월청풍(明月淸風)이네  
올바른 자세로 대도(大道)를 지키니 그 아니 대장부인가  
이 밖에 **부귀빈천** 그 어느 위력인들 마음 동요하라

<제10수>

- 신지, 「영언십이장」-

\* 천심녹수: 깊고 푸른 물  
\* 만척단애: 가파른 언덕

(나)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춤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는 이 ㉡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성장하여서 아직도 이 ㉢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방듯이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압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구나!

이 점의 대칭위치에 또 다른 밝음(明)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킨다. 덩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마는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런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보다.

이 밤에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오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 속에 감박감박 줄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華詞)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 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이제 닭이 해를 치면서 뱀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 권으로 휘어하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답하고 나도 그대로 암답**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꼭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마는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굳음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출출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 보다 나무는 ㉡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런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든 탄생시켜 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나**.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육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량을 자랑치 못함에 빠져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왠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아차! 저 별이 번쩍 흐른다. ㉢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 윤동주, 「별똥 떨어진 데」-

\*둔길: 둔한 기질  
\*가랑지길: 갈림길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자연의 정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대비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호명하여 대상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시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의 흥겨움을 부각한다.
- ② ㉡는 화자가 방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불안함과 막막함을 내포한다.
- ③ ㉢은 화자와 다르게 행복스러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동경하고 동일시 되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의 취향을 드러내고, ㉡는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상태를 의미한다.
- ⑤ ㉠은 밝음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대상의 속성이 부각되고, ㉢은 태어난 자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대상의 지속성이 드러난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신지는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자연의 모습을 시조에 담아 자연을 즐기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영언십이장」에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하거나,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① <제3수>는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후 종장에서 '한홍'에 '겨워 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제2수>의 '호월'이 '천리로다'라는 것은 <제10수>의 '대장부'와 같이 '올바른 자세로 태도를 지키는 것과 달리 자신과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괴리를 나타낸다.
- ③ <제3수>에서 '천심녹수'와 '만척단애'로 인한 정서는 <제2수>에서 '긴 구름 텅 빈 하늘'로 인한 정서와 유사하다.
- ④ <제10수>에서 '마음은 청천백일'이고 '생애는 명월청풍'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을 드러낸다.
- ⑤ <제4수>의 '널로 좇아 늙'고자 하는 태도는 <제10수>의 '부귀빈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와 관련을 맺는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자조하는 한 젊은이를 자신이라고 밝힘으로써,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의식을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② ㉡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둠이라 밝힘으로써, 화자가 줄곧 불안과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에서 자신이 느끼는 구속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내비친다.
- ④ ㉣에서 대상이 행동의 방향을 신경 쓰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적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 ⑤ ㉣에서 별이 떨어진 곳을 자신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여김으로써,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낸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의 구체적 면모를 주목하여 대상의 속성과 자신의 내면을 연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자는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된다.

- ① (가)는 ‘붉은 꽃’이 피고 ‘백구’가 나니 흥취를 느끼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인식하여 삶의 방향성을 사유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나)는 화자와 ‘하루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주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주목한 대상의 속성과 자신의 내면을 연결하고 있군.
- ③ (가)는 ‘날갯짓 하는 새’에 주목해 이제는 자신을 ‘찾을 이’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하여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군.
- ④ (나)는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이 와도 ‘나’는 ‘그대로 암담’함을 인식하고 나무의 속성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나무가 ‘행복스럽’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 있군.
- ⑤ (가)는 ‘부귀빈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자부심을, (나)는 ‘밤’이 ‘나의 도전의 호칭’이라는 것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으려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